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야고보서 1:5~6 (성구 익히기) 우리가 신앙으로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 (25~30분)

칠판에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적는다.

“이 단 하나의 구절이 어느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기록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큰 영향과 광범위한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신약교리 주해서, 3:246~247쪽)

학생들에게 맥콩키 장로가 어떤 성구를 지칭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반 전체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이 성구가 어떻게 칠판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는지 질문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0~19절을** 읽고 또한 조셉 스미스가 이 구절을 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첫번째 시현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만일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수 있는가?
-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에서 종종 요청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그 차이를 보여주는 어떤 예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바란다면 경험을 나누도록 하지만, 너무도 성스럽고 개인적인 것을 나누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더욱 큰 권능을 가져다주는가?

조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힘의 근원을 찾아보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와 의심으로 구하는 기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학생에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기도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읽게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확신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축복을 간구할 때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복음 교리, 193쪽)

더 큰 신앙으로 그리고 덜 동요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다. 만일 우리가 열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저자 및 대상.** 야고보서의 저자는 흠어져 있던 열두 지파에게 서한을 썼으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 야고보라고 밝혔다.(야고보서 1:1) 이 사람은 아마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였을 것이다.(마태복음 13:55; 갈라디아서 1:19)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써, 주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을 것이며 아마도 필멸의 세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의 증거를 받았다.(고린도전서 15:7 참조)

**역사적 배경.** 야고보서는 일반 서한으로 분류된다. 일반

서한이라는 명칭은 이 서한들이 바울이 보낸 많은 서한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졌다.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기록된 시기와 장소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야고보서에는 그가 언제 어디서 이 서한을 썼는지에 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서한이 그가 살았던 곳인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고 가정할 뿐이다.

우리는 야고보의 서한이 서기 62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해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기 때문이다.(유대의 고사, 20.9.1) 또한 야고보가 서기 5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대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 편지가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말해 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편지는 신약전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주제.** 이 편지는 우리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매일의 생활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야고보의 서한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고하는 일련의 짧은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개**

야고보서 1~5장은 실천적인 종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 예를 들면 궁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 야고보에게 신앙은 항상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신앙을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예 가운데 하나는 소년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일어났다. 조셉은 숲 속으로 가서 어떤 교회가 참된가를 여쭙어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의 신앙은 보상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조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1~5장을 연구하고 공과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원리들에 대해 고려해 본다.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심으로 괴로움을 견디고 또한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를 강화시켜 주신다.(야고보서 1:2~4, 12~21; 4:7~10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1:2, 12 참조)
- 순수한 종교는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을 펼치며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야고보서 1:27; 2:1~9 참조; 또한 마태복음 22:34~40; 모사이야서 4:15~27; 교리와 성약 59:9 참조)
- 우리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신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로운 행함이 신앙의 열매이다.(야고보서 2:14~26; 1:22~25;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2:18 참조)
- 허를 다스리는 것(우리의 말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야고보서 3:1~12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4:30; 열마서 12:14 참조)
-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야고보서 4:4~10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3:19 참조)
- 주님을 믿는 신앙, 기도, 신권은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축복하고 병고침을 하는 필수 요소이다.(야고보서 5:13~18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35:9 참조)